

시원한 직장생활의 필수, 또 하나의 여름 아이템 '쿨비즈'

쿨비즈란 시원하다(cool)와 사업·업무(business)의 합성어로 여름철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재킷을 벗는 등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간편한 옷차림을 입도록 권장하고, 실내온도를 28℃로 유지하도록 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일환이다. 현재 직장인 88.7%는 직장에서 쿨비즈 캠페인을 시행 중이며 격식 간소화, 더위 스트레스 해소 등의 이유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1 넥타이는 풀고, 반팔 셔츠로 경쾌하게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만으로도 체감온도가 2℃ 정도 내려간다. 넥타이를 매지 않을 경우 셔츠의 선택이 중요한데, 이유는 시선이 넥타이에서 셔츠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권위적인 느낌의 드레스셔츠는 피하고 경쾌한 캐주얼 반팔셔츠를 입고, 반팔셔츠의 목 주위 단추를 오픈 하여 시원함을 주도록 한다. 쿨비즈로 셔츠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폴로셔츠를 입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카라 덕분에 격식도 차릴 수 있고 장시간 동안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 셔츠의 색상 또한 중요한데, 얼굴 빛을 밝게 비춰주고 청량한 느낌이 드는 네이비, 블루 및 화이트 컬러를 입으면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네이비와 화이트가 섞인 스트라이프는 활동적인 이미지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 혹시 넥타이가 없어 허전하다면 포켓치프나 부토니어를 활용하는 것도 멋진 쿨비즈의 완성이다.

단계 2 기능성 소재로 시원하게

쿨비즈에 걸맞은 시원하고 가벼운 기능성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 무게가 가볍고 땀 흡수나 통기성이 좋아 더위와 피로감이 적은 리넨이나 얇은 면 소재, 체온을 낮추고 땀을 빠르게 배출해 활동성이 많은 직장인에게 좋은 와샤 소재, 가볍고 몸에 접촉면이 적은 뽀뽀한 느낌의 마소재로 된 옷을 선택해 보자. 또한 땀을 빨아들여 옷 바깥으로 신속하게 발산해서 피부를 시원하게 건조시키는 쿨맥스 소재나 옷감자체에 주름이 있어 몸에 잘 달라붙지 않는 시어서커도 여름철에 유용하다. 단, 세탁을 자주 해야 하므로 다림질이 쉬운 소재를 선택해야 하고, 얇은 소재

들은 속이 비취기가 쉬우므로 밝은 색상을 입을 때는 내의 색상도 유의하자.

단계 3 보트 슈즈나 단화로 가볍게

무더위와 습한 날씨에는 땀의 건조가 빨라 쾌적한 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발의 온도를 내려 편안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해야 한다. 얇고 가벼운 소재이며 통풍이 잘 되는 로퍼 스타일 여름구두나 가벼운 단화가 적당하다. 최근에는 가볍고 부드러우며 물에 젖어도 쉽게 마르는 보트 슈즈나 겹은 부드러운 소가죽에 메쉬 소재를 안감으로 활용해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든 스마트한 슈즈도 쿨비즈와 함께 인기이다.

단계 4 노출은 삼가 하고, 예의와 격식 있게

속옷이 많이 비치어 옷은 속옷을 겹쳐 입어야 하기 때문에 더 더울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겹만 입어도 되는 비치지 않는 옷을 입도록 한다. 또한 쿨맵시는 예의와 격식을 갖춘 옷차림이다. 회의나 비즈니스 미팅 등에서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는 개성이 지나친 난해한 스타일이나 너무 화려한 컬러, 너무 짧고 몸에 딱 붙는 의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고, 같이 시원함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쿨비즈임을 기억하자.

쿨비즈를 통해 연간 39만 TOE에 달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냉방에 의해 배출되는 CO₂량이 줄어 연간 197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이 효과는 약 7억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하니, 지구도 살리고 우리도 시원해질 수 있는 쿨비즈에 적극 동참하자.

Tip 쿨비즈에 맞는 패션 포인트

자칫 밋밋해 보이고 나만의 개성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다. 딱딱한 브리프 케이스보다는 가벼운 클러치백이나 오랫동안 가방을 매도 땀이 차지 않는 가벼운 매쉬 소재로 된 백팩이 적당하다.